

AUTHOR 신복윤

TITLE 칼빈의 기도론

IN 신학정론(Journal of Reformed Theology)
vol.5 no.9 (February, 1987):87-103

칼빈의 기도론

신 복 윤

〈교수·조직신학〉

서 론

칼빈은 자신의 祈禱論을 기독교강요(1559년 결정판) 제 3권 20장 全章에서 다루고 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기도론 중에서도 칼빈의 이 기도론은 두드러진다.¹⁾ 터툴리안(Tertullian)의 De oratione, 오리겐(Origen)의 *περι εὐχῆς*, 그레고리(Gregory of Nyssa)의 On the Lord's Prayer, 그리고 어거스틴과 쉴 빅토르의 휴(Augustin and Hugh of St. Victor)의 논문들이 다 유명한 기도론으로 꼽히지만 칼빈의 기도론을 따르지 못한다.

칼빈에게 있어서 기도는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주요 훈련은 “기도하는 것”이며, 이것은 “신앙의 참된 증거”가 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²⁾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소망을 나타내는 신앙이다.³⁾ 기도는 그러므로 살아있는 신앙의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⁴⁾ 기도는 신앙의 호흡과 같아서 거룩한 교리에

1) *Inst.* III. 20. 1 각주. 이 약자는 기독교강요 제 3권 20장 1절을 의미한다.

2) *Serm.* on 1 Tim. 2:1-2.

3) *Comm.* on Ps. 91:15.

4) *Comm.* on Ps. 54:6.

대한 지식의 내면에 살아 움직이는 표가 된다.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에 원칙과 형식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칼빈은 길게 논하며 설명해 나아간다.

칼빈은 이 기도론을 52절로 나누어 길게 설명하고 있지만, 이것을 대별하면 기도의 성격과 가치, 기도의 원칙, 불완전한 기도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 聖者의 중보에 대한 반박, 기도의 종류, 찬송과 언어의 사용, 주기도문 해설, 인내있는 기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다만 기도의 필요성, 기도의 원칙, 그리고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만을 다루기로 한다.

I. 기도의 필요성

기도는 왜 필요한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富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칼빈은 말한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친교가 있으며, 이 친교를 통하여 사람들은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 직접 하나님께 그 약속에 대하여 간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또한 기도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셨다. 주의 복음은 보화가 묻혀 있는 곳을 가리켜 주었고,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본 그 보화를 기도로 캐내야 하는 것이다.⁵⁾

칼빈은 이렇게 기도의 필요성을 말하고 기도가 유일한 요새가 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우리의 일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攝理와, 연약해서 쓰러지려고 하는 우리를 붙드시는 能力과, 비참하게 罪에 늘려있는 우리를 받아들여 은혜를 입혀 주시는 그의 인자하심에 호소하는 것이다.”⁶⁾

5) *Inst.* Ⅲ. 20. 2.

6) *Ibid.*

기도는 하나님의 섭리, 능력, 인자하심에 호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다고 칼빈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양심에는 특별한 平和와 安慰이 오게 된다.

人間은 절망적인 존재이다. 인간에게는 풀이라고는 하나도 없으며, 구원받을 만한 길도 없다. 그러므로 곤경에 빠진 자기를 구해낼 힘은 자기 아닌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한다.” 그래서 인간의 이 絶望은 기도의 기초가 된다.

칼빈은 信仰과 祈禱의 관련성을 강조한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우리에게 없는 것이 모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히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 곧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이다. 칼빈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아는 그것을 찾으며 기도로 그에게 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의 주인이시며,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 것과 그에게 구하라고 격려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그에게 구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땅속에 감추인 보화가 어디 묻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보화를 무시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아무 유익이 없을 것이다.⁷⁾

칼빈이 이 말을 하게 된 것은,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등한히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祈禱의 無用論을 주장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데, 기도로 하나님을 재촉한다는 것은 전혀 불필요한 일이 아니겠는가 한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기도의 참된 目的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칼빈은 기도의 目的을 이렇게 설명한다. “하나님께서 기

7) *Inst.* Ⅲ. 20. 1.

8) *Ibid.*

도를 제정하신 목적은 주님 자신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우리를 위한 것이다.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과 자신에게 유익되는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를 기도로 증명함으로써,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마땅한 권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배할 때 이 제사의 유익은 우리에게 돌아온다.”⁹⁾

그는 엘리야의 실례를 들어, 신앙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 할수록 더 강렬하게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고 한다.

“하나님의 뜻을 확신한 엘리야는 비가 올 것이라고 아합왕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나서도, 여전히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열심히 기도하며, 사환을 일꾼이나 보내서 비가 오나 보라고 하였다(왕상 18:42). 이렇게 한 것은 그가 예언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기 신앙이 잠들거나 마비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 소원을 하나님께 계속 아뢰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¹⁰⁾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의 불행을 느끼지 못하거나, 혹은 간구하지 못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와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칼빈은 말하고, 기도해야 할 이유 여섯가지를 다음과 같이 열거한다.¹¹⁾

첫째는, 하나님을 항상 찾으며 섬기겠다는 소원과 열의가 우리 마음 속에 불일듯 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되면 곤란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거룩한 구원의 뜻으로 믿고 그에게 달려가서 피난하는 습관이 붙게 된다.

둘째로, 하나님께 알려 드리지 못할 부끄러운 욕망이나 소원이 우리 마음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눈앞에 우리의 모든 소원을 내놓으며 우리의 속 마음을 토로해야 한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여러가지 은혜를 주실 때에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한다(시 145:15-16 참조).

9) *Inst.* III. 20. 3.

10) *Ibid.*

네째로, 우리가 구하던 것을 얻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확신으로 그의 인자하심을 더욱 열심히 명상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다섯째로, 기도로 얻었다고 인정하는 것들을 더욱 큰 기쁨으로 받아들일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여섯째로, 우리가 연약한 때일수록 습관과 경험으로 그의 섭리를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며, 우리가 곤란한 때에 그에게 빌 길을 친히 열어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언제나 도와주시며, 말쑥으로 달래시는 것이 아니고 즉각적인 도움으로 지켜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무시거나 게으르신 것처럼 보일 뿐이다. 하나님은 섭리로 萬物을 지키시기 때문에 기도가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시 145:18)고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에게 넘치도록 배풀어 주시면서도 도리어 그것을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삼으신다.”¹²⁾

II. 기도의 원칙

칼빈은 올바른 기도의 4가지 원칙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1. 敬畏心을 갖고 기도해야 한다

칼빈은 기도하는 사람의 올바른 자세를 기도의 이 첫째 원칙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합당한 기도를 드리기 위한 첫째 원칙은, 하나님과 대화하려

11) *Ibid.*

12) *Ibid.*

는 사람은 이에 적합한 정신과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¹³⁾

칼빈은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하고, 이와 같은 기도의 개념에는 不敬스럽거나 충동적이거나 경솔한 요소가 끼어 들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¹⁴⁾ 이와 같은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만질로 이끌거나, 혹은 하나님을 바르고 순수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육적인 열려와 사상을 버리고 진적으로 기도에 마음을 쏟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자체를 높이 끌어 올려야 한다. 인간의 정신은 본래 방황하는 습성 때문에 이질적이고 외부적인 열려에 빠지기 쉽고, 하늘 나라는 보지 못하고 땅의 일에 얽매이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이러한 모든 열려들을 버리고, 즉 우리의 정신 그 자체를 높이 초월하여 하나님 앞에 적합하고 순결한 상태로 나아가야 한다.

이와 같이 하기 위하여는 두가지 일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칼빈은 주장한다. 첫째는 祈禱의 集中이다. 칼빈은 다음과 같이 이를 설명한다.

첫째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자기의 능력과 노력을 기도에 바쳐야 하고, 흔히 볼 수 있는 대로 산만한 생각으로 주의가 흩어지지 않아야 한다. 경외하는 생각이 전혀 없는 경박한 태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는 가장 반대되는 것이다. 정신을 집중하기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욱 노력해야 한다. 사람은 아무리 기도에 정신을 집중하고 있어도 쓸데 없는 생각들이 어느새 스며들어 기도의 진행을 막거나, 굴곡이 많은 결결에 들게 하여 진행을 더디게 만든다.¹⁵⁾

칼빈은 이어서 두번째의 주의할 점을 설명한다. 그것은 간구의 節制이다. 하나님은 절제있는 간구를 원하신다는 것이다.

칼빈은 주장하기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이상의

13) *Inst.* III. 20. 4.

14) *Inst.* III. 20. 16 참조.

15) *Inst.* III. 20. 5.

것을 구하지 말라는 또 다른 점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¹⁶⁾ 고 하였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라고 하셨지만(시 62:8; 145:9),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미련하고 악한 감정을 아무 분별없이 날뛰도록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신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들의 뜻에 따라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 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실만큼 관용하신 하나님은 아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경솔하고 불염치하며 무례해서 합당치 못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며, 사람 앞에서도 말하기 부끄러운 지극히 추악한 욕망들을 하나님 앞에 감히 털어 놓는다. “그래서 야심가들은 쥬피터(Jupiter)를 수호신으로 택했고, 인색한 자들은 머큐리(Mercury)를, 지식을 탐하는 자들은 아폴로(Apollo)와 미네르바(Minerva)를, 군인들은 마르스(Mars)를, 음탕한 자들은 비너스(Venus)를 택하였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말도 안되는 욕심을 기도에서 털어 놓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를 용납지 않으시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시며, 우리의 소원을 그의 권력에 굴복시키시며 억제시키신다.

우리의 정신과 마음은 완전한 상태에 도달하기에는 너무도 무력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우리를 도우시려고 성령을 기도의 교사로 주시어 기도에 있어서 바른 것이 무엇임을 알려 주시며 감정을 조절해 주신다.”¹⁷⁾ 칼빈은 이 말을 입증하기 위하여 롬 8:26을 인용한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의 뜻은 물론 성령께서 직접 기도하시거나 탄식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서 확신과 소원과 탄식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자연적인 능력으로는 결코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닐 수 없다.

16) *Inst.* III. 20. 5.

17) *Ibid.*

2. 自身の不足을 意識하고 悔改하는 祈禱가 되어야 한다

칼빈은 기도에 있어서 언제나 자신의 부족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자신의 부족을 느끼며,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함을 진심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얻고자 하는 진실한, 그리고 강렬한 소원을 갖고 기도해야 한다.¹⁸⁾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 하면서, 자기가 罪人이 아니라 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증스러우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이런 사람들은 기도할 때 마치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거나 하는 것처럼, 일정한 형식에 따라 기계적으로 혹은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없이 중얼거리지만 그러나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을 회롱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아니다.

진정으로 갈망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얻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그러한 기도는 삼가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열의와 성의를 가지고 구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할 때(마 6:9; 눅 11:2) 우리는 그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일을 위해서 주리고 목마른 사람같이 정성껏 기도해야 한다.¹⁹⁾

그러므로 祈禱는 우리의 일시적인 기분에 좌우되어서는 안된다. 야고보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약 5:13)고 말한 것처럼, 기도는 항상 똑같은 절박감을 가지고 드리는 것은 아니라 할찌라도, 우리는 바울의 교훈대로 “무시로…… 기도”(엡 6:18) 해야 한다.

모든 일이 다 잘되고, 기뻐할 일들이 우리 주위를 에워싸고 있다

18) *Inst.* III. 20. 6.

19) *Ibid.*

고 하더라도, 기도할 필요가 없는 순간은 없는 것이다. “포도주와 곡식이 풍부한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되지 않는다면 그는 때 한조각도 맛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의 지하실과 창고들도 그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막지 못할 것이다. 얼마나 많은 위험이 순간마다 우리를 노리고 있는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두려워서 한 시도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게 될 것이다.”²⁰⁾

이 사실은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칼빈은 “우리가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아도 필만큼 죄를 짓지 않는 날이 과연 있을까?” 하고 반문하고,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생각하는 열성이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절령케 하기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살전 5:17)는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한다. 이 권고는 우리의 태만을 책망하는 동시에, 끊임없는 주의가 얼마나 중요한가 함을 깨닫게 해 주는 말씀이기도 하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僞善과 거짓이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약속하셨고(시 145:18), 전심으로 찾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하였다(렘 29:13, 14).

“따라서 바른 기도에는 회개가 필요하다.”²¹⁾ 그러므로 성경에서 하나님은 罪人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고 하였다(요 9:31; 사 1:15; 렘 11:7, 8, 11).

그러므로 기도할 때 우리는 자신의 악한 행실을 미워하고, 거지와 같은 자신의 처지와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한다.

3. 자신에 대한 信賴를 버리고, 겸손히 罪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

칼빈은 세계 원칙에서 자기 신뢰를 모두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 *Ibid.*

21) *Ibid.*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세계 원칙을 세운다. 즉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겸손하게 영광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리며, 자기의 영광을 전혀 생각지 않으며, 자기의 가치를 일체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곧 자기 신뢰를 전적으로 버려야 한다. 그렇지 않고 자기의 가치를 티끌만큼이라도 주장해서 허영과 교만에 부푼다면 하나님 앞에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²²⁾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마땅히 자기 영광이나 자기 가치에 대한 어떠한 생각도 버려야 한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이같이 겸손해진 실례를 우리는 다니엘(단 9:18-20), 다윗(시143:2), 이사야(사 64:5-9), 에페시아(엡 14:7), 그리고 바룩(바룩서 2:18, 19:3:2)과 같은 하나님의 종들에게서 보게 된다.

그들은 모두가 경건하면 경건 할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더욱 겸손했다. 그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봐 주실 것을 믿고 다른 아무것도 의의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죄의 용서를 비는 일이다. 칼빈은 이렇게 말한다.

올바른 기도의 시작과 그 준비는 겸손하고 성실하게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간구하는 것이다.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너그러우신 和解를 얻기까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얻기를 바라서는 안된다. 하나님은 자신이 용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지 않는 것이다.²³⁾

이 말에서 우리는 죄의 용서를 비는 것이 祈禱의 門의 열쇠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다윗은 죄의 용서를 믿지 아니할 때에도 “여호와여 내 소사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시 25:7)라고 기도했고, 또 “나의 곤고와 환란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

서”(시 25:18)라고 기도했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매일 최근의 죄만을 고백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잊고 있는 듯한 죄까지도 고백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²⁴⁾

그런데 구약의 성도들은 기도할 때 자기의 義를 내세우면서 은혜를 구하는 예가 있는데, 이것이 옳은 일이나 하는 의분이 일어난다. 이것은 自己信賴가 아닌가.

그런데 성도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간혹 자기의 義를 내세우는 듯하다. 예컨대 다윗은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시 86:2)라고 했고, 히스기야도 “여호와여 구하소서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왕하 20:3; 사 38:3 참조)라고 했다.²⁵⁾

구약의 성도들은 어떤 意味에서 自己義를 나타내는가?

칼빈은 이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그들이 이런 말로 표현한 것은 그들이 重生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과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한다.²⁶⁾

그들은 행위의 공로에다가 기도의 기초를 두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진실하며 정직하고 무죄하다는 것을 바르게 의식하는” 참 예배자들을 위로하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과 자각을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칼빈은 또 말하기를 “이 성도들의 증거에서 그들이 순결과 무죄를 말한 것은 하나님의 모든 종들의 바라는 것이 자기들에게서 나타났다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이다”라고 설명한다.²⁷⁾

성도들은 하나님의 힘으로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받기를 원할 때, 그들은 원수들과 자기들을 비교하면서 이런 종류의 기도를 드리는

24) *Ibid.*25) *Inst.* III. 20. 10.26) *Ibid.*27) *Ibid.*22) *Inst.* III. 20. 8.23) *Inst.* III. 20. 9.

것이 보통이다.

4. 확실한 所望을 갖고 드리는 祈禱가 되어야 한다.

칼빈은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는 확실한 소망을 갖고 기도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네째 원칙은, 우리가 참으로 겸손하여져서 마음이 낮아졌다 하더라도,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으리라는 확고한 소망을 갖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다.²⁸⁾

만일 우리가 어떤 은혜를 기원하면서도 그것을 실제적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 부족한 믿음에 대하여 심히 노여워 하실 것이라고 칼빈은 주장한다.

그러므로 그는 경건한 사람의 기도는 두려움과 소망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고 말한다. “즉 그는 현재의 곤경에서 신음하며 앞으로 올 고통을 두려워 하고 불안해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에게서 피난처를 얻으며 언젠가 그가 도와 주실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²⁹⁾

칼빈은 네째 원칙을 더 설명하기 위해서 기도와 신앙을 관련시킨다. “기도는 우연히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 기도의 법칙이며, 이 법칙을 확립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과 잘 조화된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막 11:24).

칼빈은 계속해서 기도와 신앙의 관계를 설명하는 성경 구절들(마 21:22; 약 1:5-6)을 인용하고, 의심과 혼란한 마음을 가지고 응답 여부의 확실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며, 그런 사람들은 바람에 요동하는 물결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요약하

28) *Inst.* III. 20. 11.

29) *Ibid.*

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얻는 것은 모두 믿음으로 인한 것이다.”³⁰⁾

칼빈은 祈禱應答의 確信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반박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어찌구니 없는 말로 여기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믿음의 힘을 마음 깊이 체험하지 못하고 공상밖에 해본 일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상대로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고 칼빈은 말하고, 그 이유를 말하기를 “우리가 요구하는 확신의 가치와 필요성은 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서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³¹⁾라고 설명한다.

그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반박 하면서, 히 4:16, 엘 3:12, 시 56:9 등 여러 성경을 인용하고, “우리의 기도 효과가 있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구하는 것을 반드시 얻게 된다는 실념을 두 손으로 굳게 붙잡아야 한다”³²⁾고 강조한다.

III.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가치가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우리의 변호자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체험하는 그 수치와 공포에서 해방하게 하셨다고 칼빈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하나님은 우리를 수치와 공포에서 해방시키시려고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의 대언자(요엘 2:1)요, 중보자(딤후 2:5; 참조. 히 8:6; 9:15)로 삼으셨다.”³³⁾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보자로 주신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의 인도하심을 받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그 두려운 영광의 보좌를 은혜의 보좌로 바꿔 주시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두려운 威嚴을 인식하는 순간

30) *Ibid.*

31) *Inst.* III. 20. 12.

32) *Ibid.*

33) *Inst.* III. 20. 17.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없으며 자신의 무가치함을 느끼고 떨리 도망칠 수 밖에 없을 것이다.”³⁴⁾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중보자를 주시고, 이 중보자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거절하지 않으신 것처럼, 무엇이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신다고 칼빈은 확신하고 있었다. 그는 성경을 인용하므로 자신의 확신을 더욱 두텁게 한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요 16:24).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요 14:13).

하나님은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요청되는 것밖 어느 하나도 거절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강조하면서,³⁵⁾ 그는 “그리스도 아닌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은 완고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멸시하고, 그의 뜻을 무시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을 얻게 되지는 약속을 조금도 받지 못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³⁶⁾고 하였다. 그는 “처음부터 중보자의 은혜가 없으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응답을 얻지 못했다”³⁷⁾고 강조하고,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위하여 聖所에 들어간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접근하는데 중보자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豫示해 주는 사건이라고 이를 설명하였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버리면, 동시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전적으로 상실하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는 유일한 통로는 그리스도 이시므로(요 14:6), 이 길에서 벗어나며, 이 통로를 버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다른 길이 없다.”³⁸⁾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서 상호간의 구원을 하나님께 호소할 때에도 오직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만 호소하게 된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하는 모든 중보 기도는 저 유일한 중보 기도에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은 하나의 확정된 원칙인

것이다.”³⁹⁾

그리고 칼빈은 “그리스도는 구속의 중보자요 신자들은 중보 기도의 중보자”⁴⁰⁾라고 재질대는 케번가들의 말을 공박하고, 그리스도는 영원 불변하신 중보자요 일시적인 중보자가 아님을 성경을 통해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요일 2:1).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롬 2:5).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중보도 한 분이시니”(딤후 8:34). 이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지금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代言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나 이 代言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신다는 뜻은 아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자신의 죽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위한 중보를 영원히 유효케 하시며(롬 9:24 참조), 그렇게 하십시오 하느님 성소에 들어가 앞 뜰에 서 있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들의 간구를 세상 끝날까지(히 9:24 이하) 홀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⁴¹⁾

그러므로 죽은 聖者들의 仲保祈禱에서 피난처를 찾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중보의 영광을 빼앗는 자이다. 칼빈은 성자들의 중보 기도가 그릇된 교리임을 강하게 반박하였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접근하려고 하였다는 것은 미친 짓일 뿐 아니라, 우매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이른바 敎皇制度가 번창하는 곳에서는 이런 짓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자비를 얻기 위해서 그들은 계속해서 聖者들의 공적을 내세우며, 대부분의 경우 그리스도를 묵살하고 성자들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한다.”⁴²⁾

그러나 죽은 성자의 중보 기도에 대한 증거는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우리에게 제시하며, 우

34) *Ibid.*

35) *Comm. on John, Part Two, p.129* 참조.

36) *Inst.* III. 20. 17.

37) *Inst.* III. 20. 18.

38) *Inst.* III. 20. 19.

39) *Ibid.*

40) *Inst.* III. 20. 20.

41) *Ibid.*

42) *Inst.* III. 20. 21.

리를 그리스도에게로 보내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든든히 세운다.”⁴³⁾ 그런데 성자들의 중보를 좋아하는 자들은 그리스도 만으로 부족하거나 너무 엄격하신 것처럼 생각하는 모양이다. 이러한 혼란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훼손하고, 유일한 중보의 칭호를 그리스도에게서 빼앗고 있는 것이다.

칼빈은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라고 주장한 암브로스(Ambrose)의 다음과 같은 말을 인용한다. “그는 우리의 입이시므로 그를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께 말한다. 그는 우리의 눈이시므로 그를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를 본다. 그는 우리의 오른 손이시므로, 그를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께 우리 자신을 바친다. 그가 중간에 개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⁴⁴⁾

聖者들의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성경적 증거는(시 22 : 4—5) 성자들의 중보 기도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다만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증용할 수 있다고 하는 한 실례에 지나지 않는다.⁴⁵⁾ 성경이 하나님 경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祈禱의 方法의 문제이다.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께서 모든 제물을 제 이차적인 것으로 여기시고 敬虔의 義務를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으로 보아, 다른 이에게 기도하는 것은 분명히 신성 모독이다”라고 하였다.⁴⁶⁾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만을 기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할 것을 명명하신다. 칼빈은 말씀을 기초로 한 믿음을 가르켜서 “기도의 어머니”라 하고, 말씀에서 멀어지는 기도는 즉시 부패하게 된다고 강조하였다.

중보의 직무는 그리스도만이 차지하는 특유의 일이다. “이 중보자가 성결케 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⁴⁷⁾

신자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그리스도의 이 중보를 믿으면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자들이 상호간에 교우를 위해

43) *Ibid.*

44) *Ibid.*, Ambrose, *On Isaac or the Soul* viii. 75, CSEL 32, 694 ; MPL 14, 520.

45) *Inst.* III. 20. 26 참조.

46) *Inst.* III. 20. 27.

47) *Ibid.*

서 기도 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유일한 중보를 손상시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중보의 직무를 죽은 성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행위이다. “그 이유는 성경에는 죽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한 곳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상호간의 의무를 다하라고 자주 권하지만 ‘죽은’ 사람들에게 관해서는 한 마디도 말하지 않았다.”⁴⁸⁾

칼빈은 결론적으로 敎皇主義者들, 혹은 聖者崇拜者들의 잘못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올바른 기도는 믿음에서 생기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서 생기며(롬 10 : 14, 17), 하나님의 말씀은 상상에 불과한 중보 기도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자를 자기들의 代言者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迷信的인 일이기 때문이다.”⁴⁹⁾

48) *Ibid.*

49) *Ibid.*